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세계 최정상 마린스키발레단의 수석무용수 김기민은 11월 '백조의 호수'를 통해 오랜만에 고국 팬들과 만났다. 그는 2011년 마린스키발레단에 동양인 최초로 입단한 뒤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데 이어 2015년 수석무용수 자리까지 올랐다.

2016년 한국인 발레리노 최초로 브누아 드 라 당스 상을 받으며 세계무용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이번 내한 공연에서 특유의 '시간과 중력이 멈춘 듯한' 점프와 섬세한 연기력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국립발레단 무용수 박솔기와 이재우, 강효형이 2017년 4월 브누아 드 라 당스 후보에 한꺼번에 오르며 수상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다.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박솔기와 이재우는 각각 '최우수 여성 무용수(Female Dancer)' 부문과 '최우수 남성 무용수(Male Dancer)' 부문 후보로, 솔리스트 겸 안무가 강효형은 '안무가(Choreographer)'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2016년 브누아 드 라 당스에서 '최우수 안무상' 수상의 영광을 안은 스페인국립무용단(안무 요한 잉게)의 '카르멘'도 한국을 찾아 관심을 끌었다. 카르멘은 원작의 관능적 에너지는 그대로 가져오되 독창적 안무와 현대적인 의상, 비제의 원곡을 편곡한 음악 등을 추가해 새로운 매력을 발산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여러 노력도 이어졌다. 국립발레단은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로 신작 '안나 카레니나'를 선보였다. 취리히발레단의 예술감독 크리스티안 슈콕이 2014년 초연한 작품으로, 소용돌이치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아름다운 의상과 낭만적인 러시아 음악, 섬세한 연출로 풀어내 호평을 받았다.



▲ 10월 2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열린 국립발레단 '안나 카레니나' 기자회견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 영화

### ■ 개요

2017년 극장 관객 수는 5년 연속 2억 명을 돌파했다. 2016년에 비해 관객 수는 1.3%, 영화산업 전체 매출은 2.4% 증가하며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렀다. 국민 1인당 연평균 관람 횟수는 4.25회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어 영화시장의 성장 동력을 더 이상 찾기 힘든 상황이다.

2017년 개봉작 가운데 1천만 관객을 넘긴 영화는 '택시운전사'와 '신과 함께-죄와 벌' 2편이었다. 실화를 소재로 하거나 묵직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 여러 편이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영화제작이 범죄물에 쏠리는 현상은 여전했다. 페미니즘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영화계의 불평등한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 ■ 영화산업 매출액 3년 연속 2조원대·관객수 6년 만에 감소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17 한국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영화산업 매출은 2조3천271억원으로 2016년 대비 2.4% 증가해 2014년부터 4년 연속 2조원대를 이었다. 그러나 2017년 GDP가 3.1%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영화산업 시장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극장 관객 수는 2억1천987만 명으로 2016년 대비 1.3% 증가했고 입장권 매출액은 1조7천566억원으로 0.8% 늘었다. 관객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한국영화 관객 수는 2.7% 줄어든 1억1천390만 명이었다.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은 51.8%를 기록했다. 인구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횟수는 4.25회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매출은 4천362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대비 5.7% 성장했지만 성장률은 낮아졌다. 플랫폼별로는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의 매출액이 3천543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81.2%를 차지했고 인터넷 VOD(주문형 비디오)가 75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영화의 해외매출액은 1억1천879만 달러로 2016년 대비 17.5% 늘어났다. 완성작 수출은 4천72만 달러로 7.2% 감소한 반면, 서비스 수출액은 7천806만 달러로 36.5% 늘어나며 해외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완성작 가운데 '강철비'와 '염력' 등이 국내 개봉 이전에 넷플릭스에 팔리는 등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영화 구매가 두드러졌다. 서비스 분야에선 텍스터스튜디오 등 VFX(시각특수효과) 업체의 중국 대작 수주가 돋보였다. 중국 수출액이 2016년 대비 45% 증가한 5천477만 달러를 기록했다.

### ■ 100억원대 영화 8편…평균 수익률은 크게 떨어져

영화진흥위원회가 2017년 극장에서 개봉한 한국영화 376편 가운데 40회 이상 상영된 작품 174편을 대상으로 제작비를 조사한 결과 순제작비와 마케팅비를 포함한 총제작비는 4천582억원으로 집계됐다. 편당 평균 총제작비는 26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마케팅비를 제외한 순제작비를 놓고 보면, 100억원 이상이 들어간 작품이 8편으로 2016년 5편에서 증가했다. 반면 순제작비 70억~100억원의 영화는 4편으로 2016년 10편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영진위는 70억원 이상의 이른바 고예산 상업영화의 순제작비가 100억원대로 상승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체 작품 가운데 상업영화 83편의 평균 총제작비는 52억9

천만원으로 2016년 46억7천만원에서 증가했다. 손익분기점을 넘은 영화는 전체의 27.7%에 해당하는 23편, 수익률이 100%를 웃돈 작품은 8편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평균 수익률은 4.7%로 2016년 21.8%에서 크게 떨어졌다. 영진위는 2016년 대비 고예산 영화의 수익률이 낮아진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총제작비 100억원 이상 영화의 평균 수익률은 2016년 68.7%에서 2017년 32.4%로 떨어졌다.

## ■ 사회적 메시지 담은 영화 선전…범죄물 쏠림 현상 여전

역사적 소재를 끌어오거나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영화제작이 일정 수준 이상의 흥행을 기대할 수 있는 범죄물로 쏠리는 현상은 2017년에도 두드러졌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는 관객 1천 220만 명을 동원하며 2017년 개봉작 가운데 첫 천만 영화가 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현재를 휴먼코미디 장르에 담아낸 '아이 캔 스피크'도 관객 수 326만 명으로 묵직한 메시지를 지닌 영화의 힘을 보여줬다.

2000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재구성한 '재심'(242만명), 일본의 조선인 학살에 항거한 박열과 그의 연인 가네코 후미코의 이야기를 다룬 '박열'(235만 명) 등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들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다만 패배의 역사를 담백하게 그린 '남한산성', 역사적 비극에 영화적 상상력을 가미한 '균함도'는 흥행 면에서 아쉬운 결과를 냈다.

다큐멘터리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노무현입니다'는 185만 명을 불러 모았고, 공영방송의 무너진 공공성을 다룬 '공범자들'도 26만 명이 관람했다. 가수 김광석의 자살 의혹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김광석'은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영화 개봉 이후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졌으나,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명확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2017년에도 범죄를 핵심 소재로 한 영화들이 대거 제작됐다. '범죄도시', '청년경찰', '더 킹', '프리즌', '살인자의 기억법', '보안관', '조작된 도시', '마스터', '꾼', '브이아이피' 등이다. 쏟아지는 범죄물에 관객 피로도가 높아지고, 한국영화의 다양성과 외연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 국제영화제 호평…감독·배우 해외진출 러시

배우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과 호흡을 맞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2월 열린 제67회 베를린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한국의 여배우가 3대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은 2008년 칸영화제에서 전도연이 '밀양'으로 수상한 이후 10년 만이다.

5월에 열린 칸영화제에서도 한국영화는 화제의 중심에 섰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 홍상수 감독의 '그 후'와 '클레어의 카메라', 변성현 감독의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정병길 감독의 '악녀' 등 총 5편의 장편영화가 공식부문에 초청됐다.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평단의 고른 호평을 받았다.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넷플릭스 영화 '옥자'는 온라인 배급방식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킨 촉매제가 됐다. 칸영화제 집행위원회는 2018년부터 극장 개봉영화만 경쟁부문에 초청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넷플릭스 영화 논란은 국내에서도 이어졌다. CGV, 롯데,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옥자'의 극장 개봉과 넷플릭스 동시 서비스에 반발하며 상영을 보이콧했다. 제2의 '옥자'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극장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명 감독과 배우들의 해외진출 소식도 이어졌다. 박찬욱 감독은 영국 BBC의 6부작 드라마 '더 리틀 드러머 걸'의 연출을 맡았다. 존 르 카레의 동명소설이 원작으로, 스파이가 된 한 여배우의 삶과 사랑을 다룬다.

'신과 함께-죄와 벌'로 1천4백만 명 넘는 관객을 동원한 김용화 감독은 할리우드에 진출한다. 슈퍼히어로 영화 '프로디걸'의 연출자로 낙점됐다. '악녀'의 정병길 감독은 레드5 코믹스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SF액션영화 '애프터번'의 연출을 맡아 할리우드 배우 제라드 버틀러와 호흡을 맞춘다. 배우 강동원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쓰나미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덮친다는 설정의 할리우드 재난영화 '쓰나미 LA'에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 12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열린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 언론시사회에 김용화 감독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 홍상수·김기덕 감독 잇따라 구설수

세계적 거장으로 불리는 홍상수·김기덕 감독은 작품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구설에 올랐다.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침묵을 지키던 홍상수 감독은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 이후 김민희와 연인임을 인정했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유부남 영화감독과 불륜에 빠진 여배우 영화가 독일 함부르크 여행에서 돌아와 강릉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사랑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감독과 배우로 만난 뒤 불륜설이 나왔다. 지금까지 5편의 영화를 함께 작업했고, 홍 감독은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다.

김기덕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여배우에게 언기지도를 이유로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자 배우

의 신체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 됐다. 피해 여배우는 김 감독이 베드신을 강요했다며 강제 추행치상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이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여성 영화인들이 여성단체와 함께 피해 여배우를 돕고 나서면서 영화계 내 권력관계와 성평등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처음으로 총제작비 10억원 이상이거나 최대 스크린 수 100개 이상인 상업영화를 대상으로 성 인지 통계를 집계했다. 그 결과 2017년 여성 감독이 연출한 영화는 7편으로 전체의 8.4%에 그쳤다. 최근 5년간 개봉한 영화 여성 배우가 주연한 작품의 비중은 24%에 불과했다.

여성 제작자가 참여한 상업영화는 연평균 16.2편(22.2%), 여성 작가가 참여한 상업영화는 22편(30.1%)이었다. 여성 촬영감독이 촬영한 영화는 연평균 2.4편(3.29%)에 그쳤다.

영화 '브이아이피'는 여성을 상대로 한 잔혹한 범죄 묘사로 여성혐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영진위는 "남성들이 집단으로 주연을 맡는 영화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여성 혐오적 콘텐츠를 비판 없이 수용한다면 시장도 점차 새로운 관객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기존 관객을 붙잡아 둘 동력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재개봉 열풍 주춤

최근 몇 년간 불었던 재개봉 영화 열풍이 다소 사그라들었다. 2017년 재개봉한 영화는 87편으로 2016년 90편보다 줄었다. 재개봉 영화의 평균 관객 수는 1만865명으로, 2016년도 평균 1만4천976명에서 27.4% 감소했다.

전체 재개봉 편수는 줄었지만, 한국영화 재개봉은 2016년도 6편에서 2017년 11편으로 늘었다. 최근 거의 제작되지 않는 한국 멜로영화의 수요를 '클래식'(2003), '번지점프를 하다'(2001) 등 2000년대 멜로영화들이 기획전 형식으로 채웠다. 1960년대 개방적인 '박서방'은 고전영화 상영관 한 곳에서 상영돼 1천 600여 명을 동원하기도 했다.

외국영화를 포함해도 멜로물이 강세였다. '이프 온리'(2004)가 15만9천627명을 동원하며 흥행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4만936명으로 3위를 기록한 '원스'(2007), 4위 '첫키스만 50번째'(2004) 등 멜로영화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 종교

## ■ 개요

종교인 과세가 2017년 종교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특히 보수 개신교계가 정부의 과세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와 종교계 간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명성교회 부자세습으로 촉발된 대형교회 세습 문제는 개신교를 넘어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조계종에서는 적폐청산을 외치는 목소리가 거세진 가운데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되면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했다.

종교인구 감소가 종교계의 고민거리가 된 가운데 종교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 ■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 1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종교인들은 2018년부터 소득을 기타소득 혹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종교계의 반발과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반대로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다.

종교인 소득 과세의 법적 근거는 2015년 마련됐다.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보수 개신교계에서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등 반발이 거셌다. 결국,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소득이 아닌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돈인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범위도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에 사용한 비용을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과 구분해 기록·관리하면 그 부분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해 자기 시정 기회도 주도록 했다. 보수 개신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요구를 거의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하자 정부는 비과세대상인 종교활동비 내역을 반드시 담당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이번에는 보수 개신교계와 불교계가 종교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여전히 종교인에 대한 특례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행령 통과 이후에도 공방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했던 보수 개신교계와 불교계에 비해 천주교는 시종일관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느긋한 자세를 유지했다. 천주교는 1983년 납세 논의를 시작해 이미 1994년부터 개별 신부의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 ■ 명성교회로 불붙은 대형교회 부자세습 논란

명성교회 부자세습 절차가 2017년 11월 마무리되면서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가 개신교계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김삼환 목사가 정년퇴임을 한 뒤 교회 측은 세간의 세습 의혹을 부인하며 담임목사청빙위원회를 꾸렸고, 담임목사를 새로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3월 명성교회는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하기로 결의했다.

김 목사가 2014년 분립 개척한 경기도 하남 새나래명성교회의 합병안도 통과시켰다. 10월에는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동남노회에서도 청빙안이 통과됐다. 결국 김하나 목사는 11월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취임했다.

명성교회 세습은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의 세습방지법에 어긋난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